백합반 6월 놀이 이야기

백합반 친구들은 선생님께 "OO접어주세요,OO만들어주세요" 등 이야기하며 다양한 종이접기, 종이를 이용한 만들기 등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사는 유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종이, 종이폐품, 종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놀이들을 하며 6월 한달을 보냈답니다.

"선생님 oo 어떻게 접어요?", "oo 접고싶어요"라고 이야기 해 아이들에게 패드를 제공해주고 자신이 접고 싶은 것을 검색해 종이접기 놀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집에 있는 종이접기 책을 가져와서 유치원에서 접어봐도 즐을것 같아"라고 이야기하자 아이들은 가정에서 종이접기 책을 가져와 백합반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같이 접으며 놀이 했어요. 종이 접기를 하면서 아이들은 행복해하며 "종이접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유치원이 재미있어요. 빨리 내일도 유치원에 와서 종이접기 하고싶어요."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종이 접기를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아이들마다 해결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어떤 친구들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어떤 친구는 "종이접기 너무 어려워요 그냥 종이로 만들래요"라고 이야기하며 종이를 오리고 붙이며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영상을 다시보기하며 완성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끝까지 노력해 완성한 친구가 말했어요 "선생님 어렵긴했는데 노력하니까 완성할 수 있었어요 너무 기뻐요"

다양한 종이, 폐품등을 이용하여 코딩로봇 큐베토, 동생을 태워줄 썰매, 상자집, 안경, 책 등을 만들며 재미있게 놀이했어요.

아픈 친구,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에게 종이에 편지를 써서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받은 친구는 답장을 써서 친구에게 전달하며 놀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종이로 내가 만들고 싶은 가면을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가면을 친구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씩씩하게 소개했어요.

'종이 한 장' 동화를 읽고 종이 한 장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며 그림으로 표현하고 직접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만들며 놀이했어요.

"집에서 그림책을 만들어서 왔어요, 친구들에게 책 소개를 하고싶어요" 친구들 앞으로 나와 책 소개를 하고 친구들은 서원이가 그리고 만들어온 그림 책을 재미있게 읽으며 놀이했어요. 책 제목: 오리는 기분이 좋으면 귀여워진다. 글/그림: 지서원